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2월 23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실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임미란 ☎440-32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복 시장, 하와이 주지사 만나 우호 증진 의견 나뉨

- 이민 역사 공유, 상호 우호 증진 위해 인천방문 요청 -

인천광역시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호놀룰루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12월 22일(현지시간) 조쉬 그린(Josh green) 하와이 주지사와 만났다고 밝혔다.

조쉬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주 부주지사를 지내다 올해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2월 5일 취임했다.

유정복 시장은 주지사선거 당선과 취임 축하인사를 건넨 뒤 “인천과 하와이는 한민족 이민의 시작과 종착점이라는 인연을 가진 곳으로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호놀룰루시가 자매도시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하와이주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천과 하와이주와의 교류 증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쉬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방문을 환영하며, 인천과 하와이간 교류 증진과 관계 발전에 적극 동의하고 향후 아내와 함께 꼭 인천을 방문 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시와 호놀룰루시는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3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내년에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